

## 제 1 교시

## 국어 영역

출수형

## 목차

[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01] 해 (박두진): 9P
- [02] 당신을 보았습니다 (한용운): 41P
- [03] 그날이 오면 (심훈): 77P
- [04] 산상의 노래 (조지훈): 77P
- [05] 황혼 (이육사): 80P
- [06] 성애꽃 (최두석): 80P
- [07] 불사조 (정지용): 83P
- [08] 꽃씨 (문병란): 83P
- [09] 달 · 포도 · 잎사귀 (장만영): 86P
- [10] 아침 시 (최하림): 86P
- [11] 생명의 서 · 일장 (유치환): 89P
- [12] 희망의 거쳐 (이정록): 89P
- [13] 역사 (신석정): 92P
- [14] 지리산 뺨꼭새 (송수권): 92P
- [15] 전라도 가시내 (이용악): 95P
- [16] 나목 (신경림): 95P
- [17] 병원 (윤동주): 98P
- [18] 벽 (김기택): 98P
- [19] 눈물 (김현승): 100P
- [20] 강우 (김춘수): 100P
- [21] 파밭 가에서 (김수영): 103P
- [22] 들국 (김용택): 103P
- [23] 흙 (문정희): 106P
- [24] 느티나무로부터 (복효근): 106P
- [25]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백석): 262P
- [26]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최승호): 262P
- [27] 경사 (박목월): 267P
- [28] 겨울나무를 보며 (박재삼): 267P
- [29] 감나무 그늘 아래 (고재중): 272P
- [30] 수목 정원 9 - 번짐 (장석남): 272P
- [31]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이문재): 277P
- [32] 그 북송아나무 곁으로 (나희덕): 310P
- [33] 가재미 (문태준): 310P
- [34] 여수 (오장환): 317P
- [35] 방울소리 (이수익): 317P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9p]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장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앓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해야, 고운 해야. 너가 오면 너가사 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훗훗훗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래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취범을 따라 취범을 따라 취범을 만나면 취범과 놀고, ……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워어이 워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앓되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 박두진, 「해」 -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41p]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느니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최악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  
 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民籍)\*이 없습니다.  
 「민적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化)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  
 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 한용운, 「당신을 보았습니다」 -

\* 민적: 예전에, '호적'을 달리 이르던 말.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77p]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한다면,  
 나는 밤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오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 심훈, 「그날이 오면」 -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77p]

높으디 높은 산마루  
 낮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굽이굽이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

환히 트이는 이마 위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여기 높으디 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 조지훈, 「산상의 노래」 -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80p]

내 골방의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黃昏)을 맞이하니  
 바다의 흰 갈매기들같이도  
 인간(人間)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  
 그리고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 다오

저 십이성좌(十二星座)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鐘)소리 저문 삼림(森林) 속 그윽한 수녀(修女)들에게도  
 시멘트 장관 위 그 많은 수인(囚人)\*들에게도  
 의지가 지없는 그들의 심장(心臟)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고비 사막(沙漠)을 걸어가는 낙타(駱駝) 탄 행상대(行商隊)  
 에게나  
 아프리카 녹음(綠陰) 속 활 쏘는 토인(土人)들에게라도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地球)의 반(半)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 다오

내 오월(五月)의 골방이 아늑도 하니  
 황혼아 내일(來日)도 또 저 커튼을 걷게 하겠지  
 암암(暗暗)히\*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 이육사, 「황혼」 -

\* 수인: 옥에 갇힌 사람.  
 \* 암암히: 기억에 남은 것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하게. 또는 깊숙하고 고요하게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80p]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 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먼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최두석, 「성에꽃」 -

[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83p]

비에! 너는 모양할 수도 없도다.  
너는 나의 가장 안에서 살었도다.

너는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  
나는 너의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을 지니노라.

너를 돌려보낼 아모 이웃도 찾지 못하였노라.  
은밀히 이르노니 — ‘행복’이 너를 아조 싫여하더라.

너는 짐짓 나의 심장을 차지하였더뇨?  
비에! 오오 나의 신부! 너를 위하여 나의 창과 웃음을  
달았노라.

이제 나의 청춘이 다한 어느 날 너는 죽었도다.  
그러나 너를 묻은 아모 석문(石門)도 보지 못하였노라.

스사로 불탄 자리에서 나래를 펴는  
오오 비애! 너의 불사조 나의 눈물이여!  
- 정지용, 「불사조」 -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83p]

가을날

빈손에 받아 든 작은 꽃씨 한 알!

그 슬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다음,

오직 한 알의 작은 꽃씨 속에 모여든 가을.

빛나는 여름의 오후,

핏빛 꽃들의 몸부림이며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여물어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비애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 버리면

갑자기 뜰이 넓어 가는 가을날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 가는 빛나는 외로움!

오늘은 한 알의 꽃씨를 골라

기인 기다림의 창변(窓邊)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 문병란, 「꽃씨」 -

[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86p]

순이 버레 우는 고풍한 뜰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 왔구나

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 있다  
달은 과일보다 향스럽다

동해 바다 물처럼  
푸른  
가을  
밤

포도는 달빛이 스며 곱다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익는다

순이 포도 넝쿨 밑에 어린 잎새들이  
달빛에 젖어 호젓하구나

- 장만영, 「달·포도·잎사귀」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86p]

굴참나무는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해만 뜨면 솟아오르는 일을 한다  
 늘 새롭게 솟아오르므로 우리는  
 굴참나무가 새로운 줄 모른다  
 굴참나무는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대문을 열고 안 보이는  
 나라로 간다 네거리 지나고 시장통과  
 철길을 건너 천관산 입구에 이르면  
 굴참나무의 마음은 벌써 달떠올라  
 해의 심장을 쫓는 예감에 싸인다

그때쯤이면 아이들도 산란한 꿈에서  
 깨어나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검은 숲 위로  
 오른다 불이 붉은 막내까지도 킁킁  
 기침을 하며 이파리들이 쏟아지듯 빛을  
 토하는 잡목 숲 옆구리를 빠져나가  
 공중으로 오른다 나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은 용케도 피해 간다  
 아이들의 길과 영토는 하늘에 있다  
 그곳에서는 새들과 무리지어 비행할  
 수가 있다 그들은 종다리처럼 혹은  
 꿩지 붉은 비둘기처럼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포르릉 포르릉 날며 흘러  
 내리는 햇빛을 굴참나무처럼 느낄 수 있다

- 최하림, 「아침 시」 -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89p]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 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무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 회환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 유치환, 「생명의 서·일장」 -

\* 영겁: 영원한 세월.  
 \* 사구: 모래 언덕.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89p]

옥수수대는  
 땅바닥에서 서너 마디까지  
 뿌리를 내딛는다  
 땅에 닿지 못할 헛발이지라도  
 길게 발가락을 들이민다

허방으로 내딛는 저 곁뿌리처럼  
 마디마다 맨발의 근성을 키우는 것이다  
 목울대까지 울컥울컥  
 부젓가락 같은 뿌리를 내미는 것이다

옥수수밭 두둑의  
 저 버드나무는, 또한  
 제 흙집에서 뿌리를 내려 제 흙집에 박는다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로  
 스스로 기둥을 세운다

생이란,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라고  
 버드나무와 옥수수  
 푸른 이파리들 눈을 맞춘다

- 이정록, 「희망의 거처」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92p]

1

저 허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다사롭게 떠오르는 햇별이라거나, 보드라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아련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저리도 조출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2

바윗돌처럼 뽕뽕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 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의(囚衣)를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3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햇별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온통 괴여 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꼬옥 쫓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뱀어같이 예쁘디예쁜 손과,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 신석정, 「역사」 -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92p]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 삐꾸기가  
울음 울어  
때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 뜰\* 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삐꾸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下)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삐꾸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삐꾸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지리산 중(中)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下)에서 울던 한 마리 삐꾸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細石)\*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 송수권, 「지리산 삐꾸새」 -

\* 길 뜰: 길이 덜 뜰.

\* 세석: 조그마한 돌.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95p]

알록 조개에 입 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르뎠더러 까무스레한 네 얼굴  
 가지내야  
 나는 발을 얼구며\*  
 무쇠 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

바람 소리도 호개\*도 인전 무섭지 않다만  
 어두운 등불 밑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려다만  
 어디서 흥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애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미더운 북간도 술막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포래를 뚫고 왔다  
 가지내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해매이자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르어  
 가난한 이야기에 고히 잠겨 다오

네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천 리 천 리 또 천 리 산마다 불탔을 겐데  
 그래두 외로워서 슬퍼서 초마쪽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두 낮 두 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울어  
 불술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차알삭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한 듯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가지내야  
 울 듯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지내야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아닌 봄을 불러 줄게  
 손때 수집은 분홍 댕기 휘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나는 눈포래 휘감아 치는 벌판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

- 이용악, 「전라도 가지내」 -

\* 얼구며: '얼리며'의 방언.  
 \* 호개: 호가(胡歌). 북방 오랑캐의 노래.  
 \* 불술기: '불수레', 즉 태양. 혹은 '기차'의 함경도 사투리.  
 \* 우줄우줄: 몸이 큰 사람이나 짐승이 가볍게 울동적으로 자꾸 움직이는 모양.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95p]

나무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하늘을 향해 길게 팔을 내뻗고 있다  
 밤이면 메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  
 드러낸 몸통에서 흙 속에 박은 뿌리까지  
 그것으로 말끔히 씻어 내려는 것이겠지  
 터진 살갓에 새겨진 고달픈 삶이나  
 뒤틀린 허리에 배인 구질구질한 나날이야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 따위  
 흔들어 시원스레 털어 다시 알몸이 되겠지만  
 알고 있을까 그들 때로 서로 부둥켜안고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 신경림, 「나무」 -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98p]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 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 윤동주, 「병원」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98p]

옆구리에서 아까부터  
 무언가 꿈지락거리고 있었다.  
 내려다보니 작은 할머니였다.  
 만원 전동차에서 내리려고  
 혼자 헛되이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승객들은 빈틈없이 할머니를 에워싸고  
 높고 튼튼한 벽이 되어 있었다.  
 할머니가 아무리 중얼거리며 떠밀어도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하였으나  
 태아의 발가락처럼 꿈틀거릴 뿐이었다.  
 전동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고 닫혔지만  
 벽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꿈틀거리는 동안  
 꿈틀거릴수록 점점 작아지는 동안  
 승객들은 빈틈을 더 세게 조이며  
 더욱 견고한 벽이 되고 있었다.

- 김기택, 「벽」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100p]

더러는  
옥토(沃土)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生命)이고저……

흙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全體)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들이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아중 지니인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뭇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 김현승, 「눈물」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100p]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넘치지지미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피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흑지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 김춘수, 「강우」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103p]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 김수영, 「파발 가에서」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103p]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헌다요  
 뭐헌다요. 산 아래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헌다요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산그늘도 다 도망가불고  
 산 아래 집 뒤편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 안 오는데 뭘 헛짓이다요  
 저런 것들이 다 뭘 소용이다요  
 뭘 소용이다요. 어둔 산머리  
 초생달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헌다요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허연 서리만 끼어가고  
 저 달 금방 저블면  
 세상 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일 텃디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이 가을 다 가도록  
 서리 발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뭐헌다요, 뭘 소용이다요.

- 김용택, 「들국」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106p]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흙 흙 흙 하고 그를 불러 보라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이내 두 눈이 젖어온다

흙은 생명의 태반이며  
 또한 귀의처\*인 것을 나는 모른다  
 다만 그를 사랑한 도공이 밤낮으로  
 그를 주물러서 달덩이를 낳는 것을 본 일은 있다  
 또한 그의 가슴에 한 줌의 씨앗을 뿌리면  
 철 되어 한 가마의 곡식이 돌아오는 것도 보았다  
 흙의 일이므로  
 농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겸허하게 농사라고 불렀다

그래도 나는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흙 흙 흙 하고 그를 불러 보면  
 눈물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가 들려온다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 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 문정희, 「흙」 -

\* 귀의처: 돌아가거나 돌아와 몸을 의지하는 곳.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106p]

푸른 수액을 빨며 매미 울음꽃 피우는 한낮이면  
 꿈에 젖은 듯 반쯤은 즐고 있는 느티나무  
 울통불통 뿌리, 나무의 발등  
 혹은 발가락이 땅 위로 불거져 나왔다  
 군데군데 굳은살에 웅이가 박혔다  
 먼 길 걸어왔단 뜻이리라  
 화급히 바빠야 할 일은 없어서 나도  
 그 위에 앉아 신발을 벗는다  
 그렇게 너와 나와는  
 참 멀리 왔구나 어디서 왔느냐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느냐  
 어디로 가는 길이나 물으며 하늘을 보는데  
 무엇이 그리 무거웠을까 부러진 가지  
 꺾질 그 안 쪽으로  
 속살이 썩어 몸통이 비어 가는데  
 그 속에 뿌리를 묻고 풀 몇 포기 꽃을 피워  
 잠시 느티나무의 내생을 보여 준다  
 돌아보면  
 삶은 커다란 상처 혹은 구멍인데  
 그것은 또 그 무엇의 자궁일지 알겠는가  
 그러니 선불리  
 치유를 꿈꾸거나 덮으려 하지 않아도 좋겠다

때 아닌 낮 모기 한 마리  
 내 발등에 앉아 배에 피꽃을 피운다  
 잡지 않는다  
 남은 길이 조금은 덜 외로우리라  
 다시 신발끈을 맨다

- 복효근, 「느티나무로부터」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262p]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木手)네 집 현 샷을 깎,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덜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쪼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디두 앉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각지 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썩김질  
 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짝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턱정을 쳐다  
 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양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긋손에 찻랑찰랑 짜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 숲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찻랑찰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

\* 권을 붙이었다: 주인집에 세 들었다.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262p]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이지 않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를  
 무슨 무슨 주의(主義)의 옛장수들이 가위질한 지도 오래  
 되었다  
 이제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엔  
 가지도 없고 잎도 없다  
 있는 것은 흙집투성이 몸통뿐.

허공은 나의 나라, 거기서는 더 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으니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神木)의 향기 맡으며 밤을  
 보내고

깨어나면 다시 국도변(國道邊)에 서 있는 내 영혼의 북  
 가시나무,  
 귀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래카드들이  
 내 앙상한 몸통에 매달려 나부끼는 소리,  
 그 뒤에 내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를.

봄기운에  
 대장간의 낫이 시퍼런 생기를 띠고  
 톱니들이 갈수록 뾰족하게 빛이 나니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여  
 잎사귀 달린 시(詩)를, 과일을 나눠 주는 시를  
 언젠가 나는 쓸 수도 있으리라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를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이  
 지지귀지 않아도

- 최승호,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267p]

유자냄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 이 지순(至純)한 길은 바다로 기울었다.

길에는 자갈이 빛났다. 건조한 가을길에 가뿐한 나의 신발(겨우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를 벗은……) 길은 바다로 기울고 발바닥에 느껴지는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傾斜感).

겨우 시야(視野)가 열리는 남색(藍色), 심오한, 잔잔한 세계. 하늘과 맞닿을 즈음에 이 신비스러운 수평(水平)의 거리감(距離感).

유자냄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 이 당연한 길은 바다로 기울고, 가뿐한 나의 신발.

나의 뒤통수에는 해가 저물고. 설레는 구름과 바람. 저녁 햇살 속에 자갈이 빛나는 길은 바다로 기울고, 나의 발바닥에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오오 기우는 세계여.

- 박목월, 「경사」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267p]

스물 안팎 때는  
 먼 수풀이 온통 산발을 하고  
 어지럽게 흔들어  
 갈피를 못 잡는 그리움에 살았다.  
 숨 가쁜 나무여 사랑이여.

이제 마흔 가까운  
 손등이 앙상한 때는  
 나무들도 전부  
 겨울나무 그것이 되어  
 잎사귀들을 떨어내고 부끄럼 없이  
 시원하게 벗을 것을 벗어 버렸다.

비로소 나는 탕에 들어앉아  
 그것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기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음을  
 부우연 노을 속 한 경치로써  
 조금씩 확인할 따름이다.

- 박재삼, 「겨울나무를 보며」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272p]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라.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뿐이라.  
 아까는 오색딱다구리가  
 따다다닥 짝고 가더니  
 봐 봐, 시방은 청설모가  
 쫓르르 타고 내려오네.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그 그리움 날로 자라면  
 주먹송이처럼 커갈 땡감들.  
 때론 머리 위로 흰구름 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 맞아보게.  
 이별까지 나눈 마당에  
 기다림은 왜 것이라만,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그래 그래, 밤이면 잠 뒤척여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보고  
 새벽이면 퍼뜩 깨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보게.  
 그 기다림 날로 익으니  
 서러움까지 익어선  
 저 질푸른 감들, 마침내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세상은 어찌 환하지 않으랴.  
 하늘은 어찌 부치지 않으랴.

- 고재중, 「감나무 그늘 아래」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272p]

번짐,  
 목련꽃은 먼저 사라지고  
 여름이 되고  
 너는 내게로  
 먼저 어느덧 내가 되고  
 나는 다시 네게로 변진다  
 번짐,  
 먼저야 살지  
 꽃은 먼저 열매가 되고  
 여름은 먼저 가을이 된다  
 번짐,  
 음악은 먼저 그림이 되고  
 삶은 먼저 죽음이 된다  
 죽음은 그러므로 먼저서  
 이 삶을 다 환히 밝힌다  
 또 한번 — 저녁은 먼저 밤이 된다  
 번짐,  
 먼저야 사랑이지  
 산기슭의 오두막 한 채 먼저서  
 봄 나비 한 마리 날아온다

- 장석남, 「수목 정원 9-번짐」 -

[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277p]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겨울 저물녘 광화문 네거리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일제히 불을 켜다 나뭇가지에  
 수만 개 꼬마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다  
 불현듯 불꽃나무! 하며 손뼉을 칠 뻔했다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 놓은 권력들  
 내륙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광화문은 광화문(光化門)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

- 이문재,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310p]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앓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310p]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마스크를 쓰고 암 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 있다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 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적 눈물을 쏟아낸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옮겨 붙은 야윈 그녀가 운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돌아나던 대낮의 빠꾸기 소리며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흙담조차 없었던 그녀 누대의 가계를 떠올린다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지고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 버렸다는 것을 안다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 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 준다  
 - 문태준, 「가재미」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317p]

여수\*에 잠겼을 때, 나에게는 조그만 희망도 숨어버린다.  
 요령\*처럼 흔들리는 슬픈 마음이어!  
 요지경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에 이상스러운 세월들  
 나는 추억이 무성한 숲속에 섰다.

요지경을 메고 다니는 늙은 장돌뱅이의 고달픈 주막  
 꿈처럼

누덕누덕이 기워진 때 묻은 추억,  
 신뢰할 만한 현실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시정배와 같이 현실을 모르며 아는 것처럼 믿고  
 있었다.

괴로운 행려 속 외로이 쉬일 때이면  
 달팽이 깍질 틈에서 문밖을 내다보는 알미운 노스타르자\*  
 너무나, 너무나, 뼈 없는 마음으로  
 오 — 너는 무슨 두 빨따구를 휘저어보는 것이냐!

- 오장환, 「여수」 -

- \* 여수: 객지에서 느끼는 쓸쓸함이나 시름.
- \* 요령: 못쇠로 만든 종 모양의 큰 방울.
- \* 노스타르자: 노스텔지어. 고향을 몹시 그리워하는 마음. 또는 지난 시절에 대한 그리움.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317p]

청계천 7가 골동품 가게에서  
나는 어느 황소 목에 걸렸던 방울을  
하나 샀다.

그 영롱한 소리의 방울을 딸랑거리던  
소는 이미 이승의 짐승이 아니지만,  
나는 소를 몰고 여름 해 질 녘 하산하던  
그날의 소년이 되어, 배고픈 저녁연기 피어오르는  
마을로 터덜터덜 걸어 내려왔다.

장사치들의 흥정이 떠들썩한 문명의  
골목에선 지금, 삼륜차가 울려대는 경적이  
저자 바닥에 따가운데  
내가 몰고 가는 소의 딸랑이는 방울소리는  
돌담 너머 옥분이네 안방에  
들릴까 말까,  
사립문 밖에 나와 날 기다리며 섰을  
누나의 귀에는 들릴까 말까.

- 이수익, 「방울소리」 -